

## Prologue

한남동과 인근의 이태원 일대는 대단한 변화가 이자 소문난 부촌이다. 상업 시설, 업무 시설이 들어서기에도 모자란 곳이다. 그 땅에도 이 프로젝트는 다세대주택이 되었다.

“지역 상권이 활성화될수록 실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은 감소하기 마련인데, 이태원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주거 공간이 33%나 줄어들었다.

기성세대에 비해 소득, 수준이 낮은 밀레니얼 세대는 좋은 동네에서 살아볼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셈이다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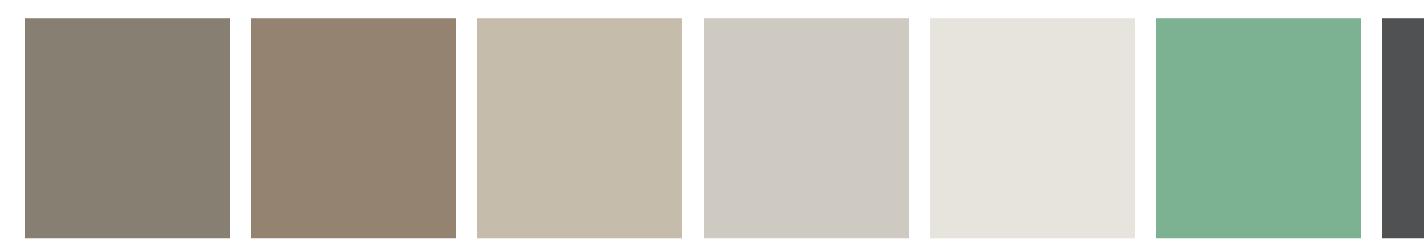
청년 공유주택 사업을 하는 커먼타운의 본부장과의 인터뷰에서 내용이다.

이 프로젝트는 한남동에 접한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두 개의 멀상에서 시작했다.

첫째, 그렇다면 한남동에는 어떤 청년이 살아야만 하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였다. 대사관이 많은 지역, 해외 대사관의 일원들. 직장 앞에 집을 구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다. 더군다나 이들은 한국에 오래 거주하지 않으므로 가구 등 집기를 구비하기 힘들다. 따라서 어떻게 6개 세대의 작은 공간에 기본 제공되는 불박이 가구를 효과적으로 넣을지 고민하게 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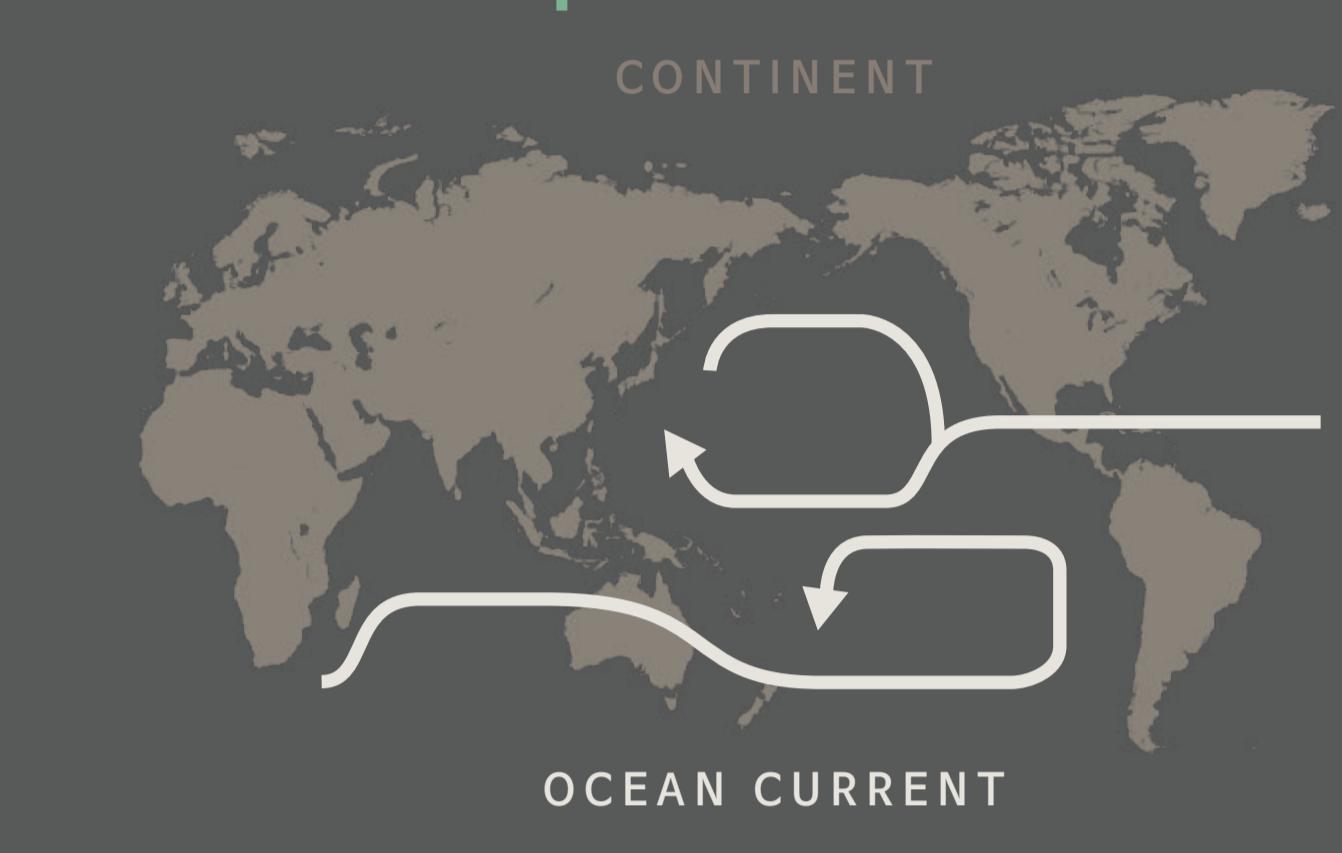
둘째, 그러나 왜 공유주택은 안 되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하나였다. 과연 청년의 공유주택은 공유를 하는 것인가? 금전적,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삶을 공유당하는 것인가? 이 주택은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므로, 지하와 지상층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두었으나, 각 가구는 철저히 독립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.

## Color Schemes



## Concept

거주의 토대인 각 가구는 대륙, 소통의 동선인 각 통로는 해류



# CONTENA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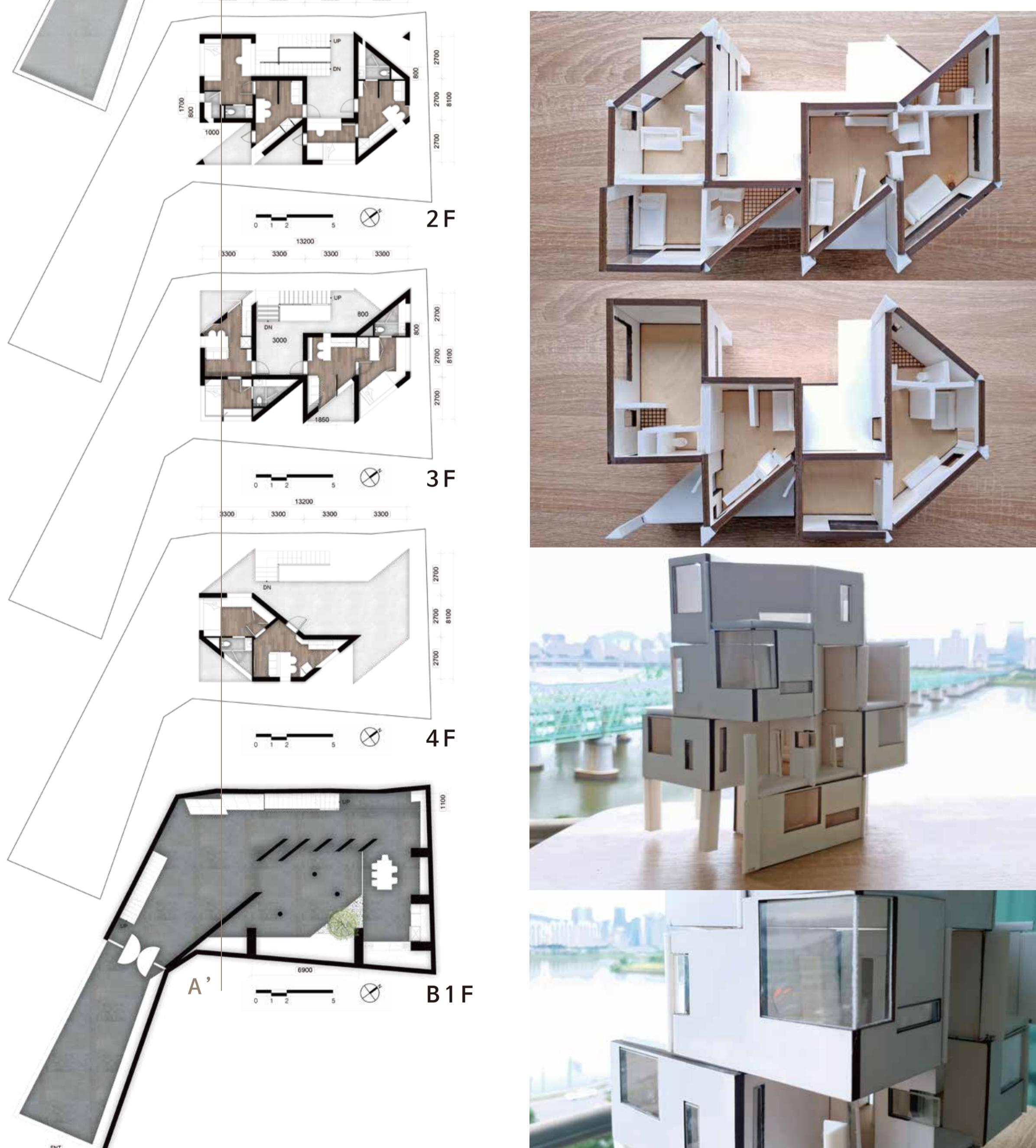
Continent for Each and Every Tenan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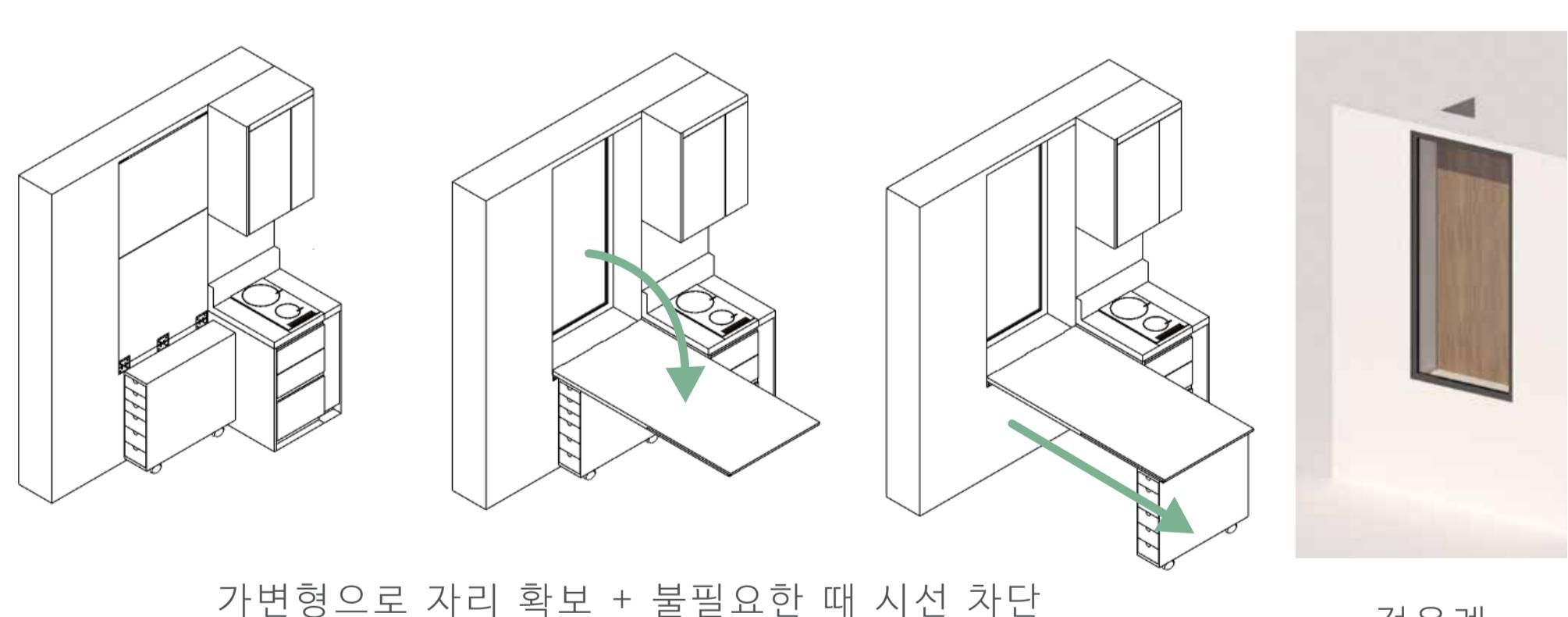
## Site and Plans



## Floor Plan Scale Model Pictures



## Furniture as Window Coverings



## Design Process

